

◇ 지령 1천호 기념 설문조사-대학언론 실무자·학생의 언론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

깨어있는 지성 살아있는 대학언론

대학주보가 지령 1000호를 맞이하여 대학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과 학생들간의 언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보다 나은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 7월 양캠퍼스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총 391부가 통계처리(SPSSPC)되었다.

성별로는 남자(73.9%) 여자(26.1%)의 분포율을 보였으며 단대별 분포를 보면 문리대(16.3%) 법대(3.5%) 정경대(12.3%) 사대(6.1%) 가정대(4.0%) 의대(4.8%) 한의대(0.8%) 치대(2.4%) 약대(2.1%) 음대(0.3%) 체대(3.5%) 외대(4.0%) 사화대(16.6%) 자연대(2.9%) 공대(16.8%) 산대(3.2%) 체과대(0.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32.5%) 2학년(29.0%) 3학년(17.5%) 4학년(21.0%)으로, 각 언론매체별로는 대학주보사기자(4.7%) 방송국기자(6.5%) 영자신문사기자(2.6%) 교황 위원(0.4%) 학생자치회 언론매체(10.8%) 학생회 편집부 및 집행부(23.7%) 일반학생(51.3%)의 설문응답이 분석되었다.

< 편집자註 >

I. 들어가는 말

어느 사회이건 사회마다 그 나름대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언론을 형성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사회라는 곳도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론을 가지게 되며, 이 언론을 통해 하나의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바 이 집합체는 다음인 대학언론매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대학 언론매체의 대표적인 기구로는 대학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각 대학의 학보사와 방송국 그리고 영자신문사 및 교지등을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대학 언론은 여타 다른 나라와는 많은 차이점을 지닌다고 한다.

이렇듯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기이한 한국 대학의 현주소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의해 규정될 수 밖에 없다.

다른 나라의 대학언론은 교내 소식과 아카데미즘적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한국의 대학언론은 정치 편향적인 내용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예, 정치편향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대학언론이 필수 밖에 없는가라는 문제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문하고 답을 구해야 하는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물음과 답변은 누구보다도 열린 한국사회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깨어있는 지성인들이 살아숨쉬는 대학사회에서 이루어진다. 그 가운데 대학언론은 보다 나은 한국사회를 지향하는 논쟁의 장소로서 한 몫을 담당한다.

언론은 사회의 목격자이며 사회의 파수꾼이다. 단편사회의 송풍을 트이게 하고 사회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대학언론인들, 그들은 현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논쟁으로 열린 사회를 앞당기는 건전한 역할을 담당한다.

오늘의 대학사회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대학언론도 각기 많은 논의를 거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각 언론매체마다 상이한 언론관을 지니기도 하며 때로는 이들간의 논의가 대학사회의 논쟁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령 1천호를 맞이한 대학주보는 본교 대학언론인들의 언론관, 그리고 그들이 상호간에 느끼는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비교하고 더 나아가 학생독자와의 견해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여론 수렴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디딤돌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II. 대학언론의 역할과 기능

“대학언론의 보도태도는 어떠한가”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보도에 국한돼야 (3.8%) 객관·공정보도를 중시해야(43.6%) 각 매체의 언론관에 입각, 비판적인 차원에서 보도해야(31.7%) 대안까지 제시해야 (21.9%)한다고 답함으로써 객관·공정성 있는 기사를 우선시하는 대학언론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언론의 주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1순위로 ‘대학문화의 선도기능’을 꼽았으며 2순위로는 ‘올바른 여론 수렴 기능’을 꼽았다. 3위로는 ‘사회비판 감시 기능’을, 4위로는 ‘정보전달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학문풍토 조성’을 위한 지식전달 기능을 최하위의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학문화의 선도 기능을 우선순위로 꼽은 것은 현시기 대학문화

생들의 편의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회가 이 문항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음은 복지위원회의 하부기구의 활동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이 문제는 방송국도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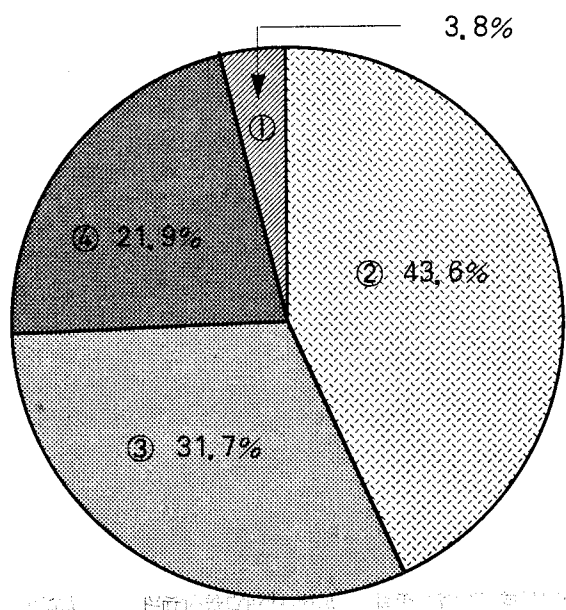
“학문풍토 조성”은 대학주보(29.7%) 방송국(17.2%) 영자신문사(35.9%) 교황 (9.4%) 학생자치회 언론매체(7.8%)가 각각의 %를 차지하였다.

여기서 독특한 점은 영자신문사가 다른 항목의 역할 보다는 학문풍토 조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음에 비해, 학생자치회 언론매체는 이 항목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공식 언론매체라 할 수 있는 대학주보, 방송국, 영자신문사가 교황이나 학생자치회 언론매체에 비해 아카데미즘적인 보도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

설문조사



“대학 언론의 보도 태도는 어떠한가 하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실 보도에 국한돼야
- ② 객관·공정 보도를 중시해야
- ③ 각 매체의 언론관에 입각, 비판적인 차원에서 보도해야
- ④ 대안까지 제시해야

하는 언론매체는 대학주보(39.1%) 방송국(14.0%) 영자신문사(3.8%)는 매우 신뢰한다(9.1%) 약간 신뢰한다(45.3%) 별로 신뢰

대학문화 선도 (1위) · 올바른 여론 수렴(2위) 이 주된 기능
사회의 파수꾼으로 대학인의 정열과 고뇌 담아내야

(5.0%) 교황(7.0%) 학생자치회 언론매체(34.5%)로 나타나 대학주보와 학생회가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이란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공정도’는 대학주보(50.8%) 방송국(25.4%) 영자신문사(8.7%) 교황(2.8%) 학생자치회 언론매체(12.3%)의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주보가 과반수 이상의 응답율을 차지하여 공정보도에 있어서는 학내언론중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하겠다.

특히 언론의 생명이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라 할 때 ‘학내 여론수렴’은 그대만큼 중요한 사안이 된다. 대학주보(51.3%) 방송국(16.7%) 영자신문사(1.9%) 교황(3.0%) 학생자치회 언

하지 않는다(31.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14.2%)고 함으로써 이들 언론사는 약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회와 총학생회 및 각 단대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한다(22.3%) 약간 신뢰한다(50.3%)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22.1%)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5.3%)고 답변함으로써 매우 신뢰한다는

< 표 7 > ‘학생회 언론매체’에 대한 언론사의 신뢰도 차이

	대학주보사	방 송 국	영자신문사
평 균	2.45	3.21	2.67
사 례 수	N=18	N=25	N=10

D.F=(2,30) F 값=3.22 p<0.05

< 표 8 > ‘학생회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 차이

	총학 매체	단대 매체	일반 학생
평 균	1.52	1.58	2.10
사 례 수	N=42	N=93	N=201

D.F=(2,30) F 값=3.22 p<0.001

론매체(27.0%)라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대학주보는 독자와 함께 호흡하는 신문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III. 학내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도

“학내 여론을 담당하고 있는 각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대학주보에 대해서는 매우 신뢰한다(16.0%) 약간

(4.8%)고 밝혔으며 방송국에 대해서도 매우 친밀하다(12.2%) 약간 친밀하다(39.7%) 별로 친밀하지 않다(37.0%) 전혀 친밀하지 않다(11.1%)고 응답하였다.

영자신문사와의 친밀도는 매우 친밀하다(3.6%) 약간 친밀하다(21.1%) 별로 친밀하지 않다(44.4%) 전혀 친밀하지 않다(31.0%)이라고 나타나 ‘전혀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한 점수가 다른 매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자지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 학생 독자들이 다소 거리감을 두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반면 교황과 매우 친밀하다(6.8%) 약간 친밀하다(21.4%) 별로 친밀하지 않다(38.1%) 전혀 친밀하지 않다(33.7%)는 결과와 학생자치회 언론매체와 매우 친밀하다(23.4%) 약간 친밀하다(35.7%) 별로 친밀하지 않다(29.4%) 전혀 친밀하지 않다(11.3%)는 견해는 다른 매체와 비교해 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지는 학기마다 학생들과 접할 수 있다는 시기성 때문에 그 친밀도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학생회 언론매체는 언론이라는 형식을 떠나고도 자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이같은 점수차이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학언론은 각각의 입장을 어느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총학생회 입장은 매우 고려해야 한다(41.1%) 약간 고려해야 한다(52.3%)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4.3%)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2.0%)는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당국의 입장에 매우 고려해야 한다(21.9%) 약간 고려해야 한다(61.1%)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12.6%)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4.3%)고 답함으로써 학교당국과 총학생회에 대한 기사는 신중히 보도돼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생의 입장은 매우 고려해야 한다(85.2%) 약간 고려해야 한다(12.5%)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0.0%)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2.1%)고 답함으로써 학생들의 입장은 매우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독자를 학생층에만 국한하여 조사한 설문기에 ‘아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하는 하나 신문의 주인은 어느 누구도 아닌 독자라는 인식에서 나타난 그들

● 정치사회 민주화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언론매체는?

정치사회민주화역할	대학주보기자	방송국기자	영자신문사기자	교황편집위원	학생회언론인	학생집행위원	일반학생
대 학 주 보 사	54.5	22.2	22.2		15.8	12.5	30.0
방 송 국		33.3	33.3				7.8
영 자 신 문 사			11.1	11.1		2.1	
교황편집위원	18.2	11.1	11.1		26.3	16.7	21.1
학생자치회언론매체	27.3	22.3	22.3		57.9	68.7	41.1
체	N=18(100%)	N=25(100%)	N=10(100%)	N=2(100%)	N=42(100%)	N=93(100%)	N=201(10%)

Chi-Square = 53.88 D.F = 20 p < 0.05

● 학원 자주화의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는 언론매체는?

학원 자주화 역할	대학주보기자	방송국기자	영자신문사기자	교황편집위원	학생회언론인	학생집행위원	일반학생
대 학 주 보 사	11.1	20.0	36.8		36.8	23.9	34.8
방 송 국		30.0				8.7	7.6
영 자 신 문 사							
교황편집위원		10.0	5.3		5.3	2.2	8.7
학생자치회언론매체	88.9	40.0	57.9		57.9	65.2	48.9
체	N=18(100%)	N=25(100%)	N=10(100%)	N=2(100%)	N=42(100%)	N=93(100%)	N=201(10%)

Chi-Square = 34.16 D.F = 15 p < 0.05

● 학교의 발전에 가장 기여도가 큰 언론매체는?

학교의 발전	대학주보기자	방송국기자	영자신문사기자	교황편집위원	학생회언론인	학생집행위원	일반학생
대 학 주 보 사	80.0	50.0			58.8	29.3	40.0
방 송 국	50.0	40.0			11.8	9.8	9.4
영 자 신 문 사	10.0		75.0				2.4
교황편집위원	10.0		25.0		5.9	7.3	4.7
학생자치회언론매체		10.0			23.5	51.2	43.5
기 타						2.4	
체	N=18(100%)	N=25(100%)	N=10(100%)	N=2(100%)	N=42(100%)	N=93(100%)	N=201(10%)

hi-Square = 96.22 D.F = 25 p < 0.001

● 공정보도를 가장 잘 수행하는 언론매체는?

공 정 보 도	대학주보기자	방송국기자	영자신문사기자	교황편집위원	학생회언론인	학생집행위원	일반학생
대 학 주 보 사	80.0		25.0	100.0	75.0	30.8	57.1
방 송 국	20.0	100.0	25.0		6.3	15.4	23.8
영 자 신 문 사			25.0			10.3	13.1
교황편집위원						2.5	
학생자치회언론매체			25.0		18.7	41.0	6.0
체	N=18(100%)	N=25(100%)	N=10(100%)	N=2(100%)	N=42(100%)	N=93(100%)	N=201(10%)

Chi-Square = 68.90 D.F = 24 p < 0.001

● 학내 여론 수렴을 가장 잘 수행하는 언론매체는?

학내 여론 수렴	대학주보기자	방송국기자	영자신문사기자	교황편집위원	학생회언론인	학생집행위원	일반학생
대 학 주 보 사	100.0	77.8	25.0		53.3	42.5	47.1
방 송 국		11.1	50.0		13.3	12.5	16.5
영 자 신 문 사			25.0			5.0	
교황편집위원						2.5	3.5
학생자치회언론매체		11.1			33.4	37.5	32.9
체	N=18(100%)	N=25(100%)	N=10(100%)	N=2(100%)	N=42(100%)	N=93(100%)	N=201(10%)

Chi-Square = 35.17 D.F = 20 p < 0.05

론매체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겠다.

학교당국 입장에 우선하는 언론매체는 대학주보(29.6%) 방송국(26.4%) 영자신문사(20.8%) 교황(15.2%) 학생자치회 언론

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성인의 사회라는 대학에서 정부당국의 입장을 매우 고려해야 한다(12.8%) 약간 고려해야 한다(44.8%)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22.6%) 전혀 고려하지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 학생회 매체에 대한 신뢰도와 고려도(r=0.357 p<0.001)사이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학생회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와 학교당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r=0.374 p<0.001)는 경우에도 그 관계가 입증되었다. 또, 학교당국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당국을 고려(r=0.631 p<0.001)해야 한다는 입장에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영자신문사에 대한 신뢰도와 고려도(r=0.357 p<0.001)사이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자신문사를 신뢰하는 정도는 남자의 경우 평균 2.5점 보다 여자의 경우 (평균 2.73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영자신문사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2.14 D.F=299 p<0.05)

또 영자신문사에 대한 친밀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평균 2.98점 보다 여자의 경우(평균 3.22점)가 친밀도를 더 적게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37 D.F=332 p<0.05)

않아야 한다(15.8%)고 답한 점은 아주 독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정부당국의 입장에서 보도한다는 대학주보(20.8%) 방송국(18.1%) 영자신문사(22.2%) 교황(27.8%) 학생자치회 언론매체(11.1%)라는 응답은 정부시책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는 대학언론이라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매우 상반되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IV. 각 문항간의 관계 분석

신뢰도에 있어 대학주보는 영자신문사(r=0.365 p<0.001)와, 교황(r=0.311 p<0.0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주보를 신뢰하면 할수록 영자신문사를 신뢰하는 정도가 높으며, 교황을 신뢰할수록 대학주보를 신뢰하는 정도도 높다고 풀이할 수 있다.

또한 방송국(r=0.400 p<0.001)과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방송국에 대한 신뢰도와 영자신문사에 대한 신뢰도(r=0.377 p<0.001)사이에도 이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도의 경우도 대학주보를 신뢰할수록 대학주보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으며(r=0.442 p<0.001) 방송국을 신뢰할수록 방송국과도 친밀하다고(r=0.332 p<0.001)인식하고 있다. 이같은 상관관계는 영자신문사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도(r=0.380 p<0.001), 교황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도(r=0.545 p<0.001), 학생회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와 친밀도(r=0.568 p<0.001)에서도 유의미한 통계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시말해서 학교의 공식 언론기관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와 친밀도는 특정 매체에 국한되지 않게 각각의 언론사를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뢰도와 각 입장 고려의

V. 나옴의 말

펜은 무(武)보다 강하다는 경구를 현실화 시키려는 노력을 서슴지 않는 대학언론 종사자들.

활자화 및 글의 중압감을 늘 삼 지니며 진지한 토론의 장(場)속에서도 논의와 비판을 중단하지 않는 대학언론 종사자들은 혼란의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날로 분주히 학내 곳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언론은 공기(公器)이다. 모두의 이익과 가치관이 어우러지는 장소이다. 그 장소는 분명 언론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대학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동 분모이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하지만 열린공간은 언론종사자들만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애정어린 제책과 비판을 아끼지 않는 독자들의 목소리에 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독자, 언론에 무관심한 독자, 신문의 주인인 독자의 말을 귀담지 않는 언론 종사자들은 닫힌 공간의 닫힌 언론을 만들 수 밖에 없다.

열린 귀를 가지고 독자와 끊임없는 논쟁으로 여론을 집합하는 대학언론이 살아 숨선다면 대학사회의 앞날은 그리 어둡지 않을 것이다.

조사자료 분석:정 유 미
<대학원 석사과정·신문방송학>